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
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
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
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령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어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나라 · 세계 살리는 힘도 내안에 있어

15면에서 계속

도 약 할당 정도를 스님을 봐 왔고 미국
에서도 스님을 봐 왔는데 왜 꼭 나쁜 것
을 사가지고 오십니까? 이왕이면 좋은
것을 사시지 왜 시들고 말라빠진 나쁜
물건을 사십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건
무슨 까닭이냐구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
답을 했겠습니까? 내 물건이니까 팔리
시들까 봐 시든 것부터 먹으려고 그런다
고 대답을 한 적도 있고 아까처럼 대답
한 적도 있고 그래요.

“물같이 살라
바람같이 살라
구름같이 살라
산같이 살라
우리가 사는것도
고정된게 없습니다
묵묵히 걸어갈 뿐...”

안되죠. 바다로 나가서 남이 툭 싸는 것
도 보고 구경물이 들어와서 바다로 하나
가 되는 것도 보고 또 고름물, 흙탕물 들
어오는 것도 보고 말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도 거적을 쓰고 죽는 사람, 호화롭게
죽는 사람, 또 남이 호화롭게 보는 사람,
저 사람 잘 죽었어 하고 보는 사람 등
이런 문제들을 다 보시란 얘깁니다. 우물
안에서 아무런 잘난 척 해도 바다 구경
을 한 사람하고 똑같겠습니까. 전체를 봐
야만 지혜가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건 다 다릅니다.
당장 밥 한끼가 없어서 마음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밥은 저절로 들어오게 돼
있죠. 아마도 그 뜻을 잘 모르는 분도
많은 거예요. 당장 밥 한끼가 없는데 어
떻게 좋을 수가 있나 이러겠죠. 자꾸만
나무를 비유로 드는데 나무를 한번 보십
시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색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을 안해요. 그와 같
이 우리가 불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불
성이 나를 형성시켜서 이끌어가고 있는
데 왜 주인의 걱정을 내가 맡아서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잘되는 것도 아
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말기라고 합니
다. 그리고 나는 공했으니까 없다. 나는
본래 이미 죽은 거다. 공해서 죽은 거다.
자기가 같이 죽은 거다. 자기가 더불어
같이 나가고 고정됨이 없기 들어가니까
그것 역시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요하고 텅 비었으니까 텅 비어납니다.
같이 다니고 안과 밖이 텅 비었으니까
그것은 이롭고 없는 이름이 아주 찬란합
니다. 그래서 이름조차 없는 그 이름
이요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부처이기 때문
입니다. 본래 그대로 부처예요. 그런데
학문에 따라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에 따라서 인과성이나 유전성이나 이런
것을 모두 물음표 속에 인연으로 삼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게 차례차례 나오
고 괴로움이 생기고 이러죠.
그러나 그러한 것 저러한 것을 다스린
다 생각하고 되돌려 본다면 한없이 편만
합니다. 왜냐? 오늘 살다가 죽으면 어
떻게 내일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두렵고 어렵습니까? 죽는다
는 생각을 떠나면 그냥 편만한 겁니
다. 먹고 살아야 한다. 좀 더 편하게 살
아야겠다 이런 게 없이 함이 없이 할 줄
안다면 말입니다. ‘함’이 없이 하라’라
: 말을 자주 하는데 이 말이 얼마나 깊
: 뜻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너는
: 미 공했다. 공해서 없다, 너가 하는 것

도 없고 너가 앞으로 할 것도 없다. 그래
서 너가 공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온
것도 없고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갈 것
도 없다 이런 말이죠.
이 도리를 알려면 무조건 자기 뿌리부
터 밀어야 될텐데 경전부터 보시는 분들
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이 말해주
는 게 아니예요. 이 불성이라는 것은 내
뿌리 내가 믿고 내 뿌리에서 내가 예너
지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거나 누가 빼앗아가거나 그런 게 없죠.
그런 것부터 알아야 나중에 가서 ‘아, 이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경전도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 때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살면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어디서부
터 나오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간단
하죠. 바로 내 뿌리를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인 거죠. 믿는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그냥 웃음이 나는 정도죠.

약에 병이 났다면 이럴 때도 여
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뼈가 부
러지거나 뒷가 잘못돼서 꼭 수술
을 해야 할 때에 남의 손을 빌리는 경
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내 안
에서 해결을 할 수도 있죠. 이런 무슨 말
이나 하면 여러분의 몸통이가 하는 게 아
니고 각자 마음 속에 만물박사를 두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약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관음도 있고 지장도 있고 보현도
있고 법신도 있고 다 있거든요. 뭐든지
다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왜 딴 집으로
구걸하러 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보배를 두고서 왜 구걸을 하고 살아야
만 되느냐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리를 모르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다고 하겠지만 나는 실지로
내가 실험하지 않은 것은 말을 못하죠.
왜? 말 한 마디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
은 그게 옳은 줄 알고 갔다가 그 사람이
한테 떨어지면 나가지도 거기 포함돼요.
그러나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예요. 나 때
문에 괜히 그 사람까지 빠져서 이 한생
이런 벗어날 것을 오히려 세세생생 벗
지 못하게 되니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재미있는 일도 아니고 재미없
는 일도 아닙니다. 또 말대로 웃을 일도
아니고 울 일도 아니예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물같이 살라 하는
말요. 그리고 바람같이 살라. 구름같이
살라. 산같이 살라 하는 말도 잘 아시리
다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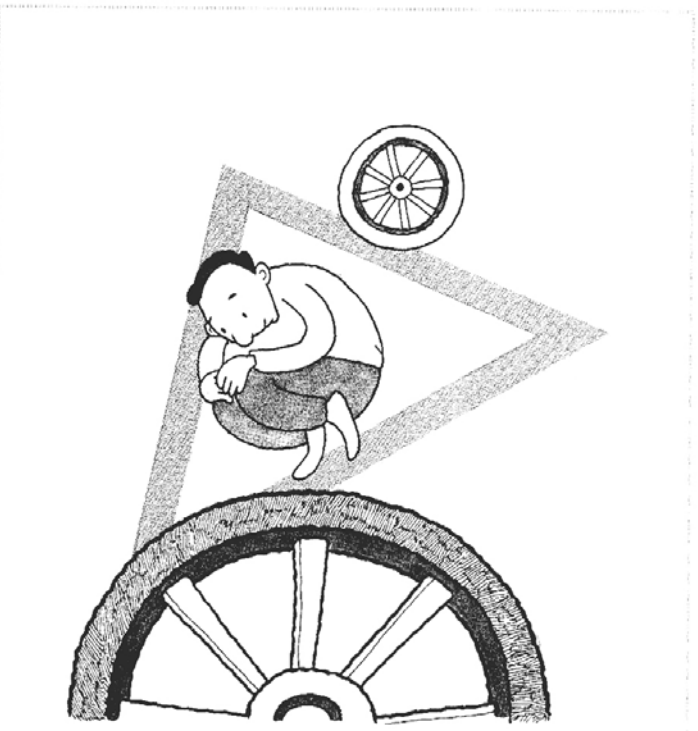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블로 재앙을 받고 물로 재앙을 받고 바
람으로 재앙을 받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
런 시대가 아니예요. 마음으로 재앙을 받
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뺏기고 살
고 마음을 잡아먹고 사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참 분하고 속상해 할 때
옆에서 말 한 마디를 해서 가라앉혀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상대
는 액운을 면할 수 있거든요. 만약 그걸
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올라가게 되면 다
나와버리던면 보지 않는데서 액운이
따르는데 그 액운을 없애주는 것도 못있
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
서 돈으로만 하는 것이 보시가 아닙니다.

계율이냐고 하는 것이 오게니 심계니
250계니 하지만 단 오게도 제대로 못 지
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계율 숫자를 넘어서 전체 계율
을 지킬 수가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 파
는 물건 사 줄 수 있는 마음, 누가 아프
면 마음 내 줄 수 있는 마음, 그런 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이며 계율을 지킨다는
것이 없애지지 않고 지킬 수 있죠. 지
킨다는 말없이 지키는 것이 되죠. 곧 보
살행이요. 공심으로서 바로 공의 보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을 똑같이 보살들이 받아서 행한
답니다. 보살들이 정각을 이룬다 또는 응
신으로서 무주상으로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데 이해되는 것은 이해되
는 대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왔고, 이
해 안되는 말은 ‘주인공, 너는 알잖아.
연젠가는 가르쳐 줘’ 하고 이렇게 마음
속에 담아오기를 못해 되었었습니다. 그런
데 최근에는 나름대로 스님 말씀을 좀더
공부할 기회가 생겨서 하디보니 단편적
으로 일찍이 있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
디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좀 정리가 되
어지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중
에서 ‘도리가 아니면서 하나도 아니구나’ 하
는 ‘도리가 나름대로 체험이 되고 스님
말씀을 모아서 정리가 된 게 있어서 공
무삼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님 말씀이 ‘일체 만물만생은 다 살
각구조로 되어 있고 그것이 원형운동을
하고 있으며 삼각원형운동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시간적으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마구 돌
아간다면 그대로 멈춰지고 엉켜지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같이 잘살기 위해 죽는 법
감사합니다. 한말씀 더 올리겠습
니다. 저회들이 이 세상에 나올 때
는 각자가 백지들을 하나 가져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지는 무한정으로 쓸 수
있고 그러면서도 더럽혀지지 않는 무한
의 백지입니다만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
힘을 그리기도 하고 글씨를 쓰기도 하고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술을 걸
리는 체로 쓰기도 합니다. 물론 그 근본
자체는 무한정이고 절대 더러워질 게 없
으니 훼손될 것은 없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각자 나는 잘 써야
되겠다’라든가 ‘나나 잘하자’ 또는 ‘일
단 나라도 올바르게 가져. 다 나를 공부

“가난을 한탄하지 마세요
가난하기에 가난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되죠”

로 보면 과거 · 미래 · 현재가 지금 한참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공간적으
로 보면 삼천대천세계가 끊임없이 공전
과 자전을 하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지구를 보면 역시 삼겹
으로 되어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고, 또 거
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 삼함으
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또 우리의 껍질은
세 겹질로서 육식을 들이고 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안으로 들여다 보면
안이라 할 것도 없겠습니까만 자기의 자
성, 성품을 중심으로 계와 정과 혜가 들
어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나라는
의식을 중심으로 내 몸과 상대와 또 바
깁 현상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어느 것
도 나라고 내세울 수 없는 무아, 즉 무의
법이고 내가 죽은 그런 도리인 것 같
이요, 또 바깥쪽은 나라고 하는 의식은
내가 없으면 모든 게 무효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만물만생은 다 나

시켜주는 과정이구나’ 하고 스스로 나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어차피 전체로서 같이 가지 않을 수 없
는 일상이니 서로 다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죽는 것은 차라리 슬프겠지만 같이
잘살기 위해서 죽는 것은 정말로 어
려운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큰스님
가르침 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안과 밖이 없어서 그
저 텅 비어서 고타할 뿐입니다. 이
름조차 없는 이름이요. 예를 들어서 말로
하면 비뚤어질 사람, 섭섭하게 들을 사람
한테는 말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보시를
하고, 또 말을 해서 받아들이 사람, 문을
열 사람한테는 그냥 웃으면서 좋게 판
말을 하다가 슬그머니 들켜줌 하는 지혜
가 필요하죠. 그래야만 이것이 서로가 잘
돌아가고 내가 했다는 걸 세우지 않아도
그건 저절로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들이 아니게 살 수가 있다 이런 뜻이
예요.

내 안에 보배두고 왜 구걸하며 사는가 지금은 마음공부 하는 사람 필요한 시대

면 좋은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걱
정이지요. 본래 인생은 한 생 살기가 바
람 같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일깨워 드리
기 위해서 한발 떼어놓으면 한발 없어진다
고 늘 얘기하잖아요. 바람같이 없어진다
고도 했죠. 지나간 것은 이미 과거가 돼
버렸으니 없고 앞으로는 아직 오지 않았
으니 없고 그냥 현재 묵묵히 걸어갈 뿐
이러구요.
우리가 사는 것도 고정된 게 없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등 모든 것
이 한가지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아
닙니다. 만나는 것도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입니다. 수많은 것을 바쳐서 마다가면서
말을 하고 마음을 내니 그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마음은 없는 겁니
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
러분이 살면서 이 도리를 모른다면 한생
을 그냥 헛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 밥 잘 먹고 돈 잘 쓰고 웃을 잘 입는
게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사느냐도 우리 마
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
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을 내면 그렇게
돌아가죠. 누구나 잘 되는 걸 좋아하지
못되는 걸 좋아 하겠습니까. 아무리 국운
이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국운을 있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마음입니다. 예전에
는 너무나 사람들이 모르는 게 많아서

무심 보시 즉 공심의 보시, 그러니까 무
주상 보시라고 해도 되죠. 우리가 어떤
불쌍하고 딱한 상황을 만났을 때 ‘참 안
됐다.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내도
무주상 보시가 되는 거죠. 물질이 없으면
죽고 없으면 무주상으로도 해야죠. 그
러면 무심으로 하면 그 무주상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 사람을 돕게 됩니다.
나 다 겪어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가 아무 말없이 여러분한테 100%
를 다 대신 해드리면 여러분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겠죠.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있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어 공부할
수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이 무
엇이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더 잘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부자로 살 때도 가난
한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서로 돕고 함
께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다시 가난으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
지는 수가 있죠.
가난하고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눈물흘리고 가슴
아픈 일들이 어디 한두 건입니까. 그렇
지만 그것도 안보이는 자기 뿌리한테 다
맡고 ‘너만이 길을 찾아가게 할 수 있
고, 너만이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고, 너만이 지켜주고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그래도 애들은 먹여 살릴 수
있어야 하잖아.’ 하고 관찰 할 수 있는 마음
이 아주 필요할 때입니다.

갖는 다 이러한 것도 전부 그런 마음씨에
서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마나님이 죽어 전부 우는
데 그 영감님만 ‘참 좋구나! 이렇게 좋
을 수가 있나!’ 하고는 춤을 덩실덩실 추
니까 전부 미쳤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게 아니예요. 선관선녀가 착 내려와서 꽃을
뿌리면서 모셔 올라가거든요. 그만큼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심인으로 불인으로
또는 법안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즐겁게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
각할 때는 죽는 것도 죽는 게 아니예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울
라가는 거니까요. 아니 승진이라면 표현
이 너무 많은데 그럴 영원히 죽지 않는
다고 할까요.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고
아무렇게나 산 사람이 사자가 동물을
들고 와서 데려가지만 마음공부 한 사람
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벌써 알고 지금
말로 하면 좋은 차로 모셔가요. 굳이 방
편으로 말하자면 법륜마르나 만(관)자가
딱 붙어 있었으니까 그걸 보고는 그냥 ‘아
이구 오셨습니까?’ 하고 모시고 가는 거
죠. 이렇게 좋은 법을 소홀히 듣지 마
세요. 우리가 사는 것이 진짜 그러하니까
요.
둘 아니며 하나도 아닌 도리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신도입니다. 여러 해 동안 스
님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나름대로 익혀

로 인해서 생긴 것이니 모든 것은 내 탓
입니다. 그러나 절대 유아가 되고 유의
법이 되고 이것은 그대로 살아가는 살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로 보면 산다 죽는다,
유이 법이다 무의 법이다, 있다 없다, 삶
이다 불행이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들이 아니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이것
을 공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
니다만 이걸 대입을 해보면 이 세상 만
사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내 성품은 마치 자서처
럼 밀고 당기는 능력이 있어서 필요한
것은 끌어당겨 쓰고 필요없는 것은 밀어
내고 하면서 내가 자유롭고 당당하게 내
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내 스스로 마음대로 이
자전과 공전을 할 수 있는 당당한 삶이
있다고 제 나름대로는 결론을 내렸으니
역시 전체이면서도 하나가 아니라고 정
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짹! 짹! 짹! (박수치
심) 허공에 연꽃이 피어 향기가 나
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 사실
입니다. 지금 얘기한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고 돌아가고 있고 자전하고 있습니다.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뜻을 알고 실천
을 할 수 있다면 나라를 빨리 일으켜 세
우는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발전이 있
을 겁니다.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여러분 주먹 안에 들어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알고보면 이 법이 너무나 좋아서 어떤
팬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
렇게 좋은데 왜 눈물을 흘리느냐구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한 도량에서 같
이 볼 아니게 될 수 없다면 다음에 또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 하나하나
가 살아나가는 데에 진정으로 어떻게 살
아야 될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도 얘기했지만 시들고 썩은 거 파는 것
말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얼마나 뼈저리게 만연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죽 돌아다니다가 그런 것 보면
몇 개는 사가지고 들어가셔야 될 걸로
압니다.
모두가 마음을 잘 쓰면서 사세요. 그
저 남한테 뿌리 가지 않고, 애들 가르치
고 그저름 건장하게만 살자 하고 열심히,
그것도 다 그놈이 하는 거니까 ‘너
는 알잖아 하고 관해서이고, 이것도 눈물
겨운 얘기죠. 자기가 자기를 못보면서 자
기한테 ‘너만이 알잖아’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다시한번 말하지만 지금 시대의 사람
들은 정신계를 무시하고 살지만 실제로
는 그 정신계의 발전이 얼마나 시급한
지 모릅니다.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
리는 힘도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
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선 자기 뿌리부
터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협찬 한마음 · 주인공